

---

##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물음** >>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표현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소개하는 말로 적당한 표현을 알려 주세요.

(김영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답** >>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000입니다.'와 같이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첫인사로 '처음 뵙습니다.'와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뵙습니다.'보다는 '뵙겠습니다.'가 자연스럽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000라고 합니다.', '000올시다.'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거만한 인상을 주거나 옛 말투이므로, 겸손한 현대 말 표현인 '000입니다.'와 같이 말합니

다.

한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안녕하십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상대방에게 소개한 후라면 몰라도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처음 뵙겠습니다. 000입니다.’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음>>** ‘의’의 발음이 헛갈려서 질문합니다.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하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는 [궁미니]의 [니]를 [니]로 발음해서 [궁미니]처럼 발음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박영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답>>** ‘무늬[무니], ‘희망[히망], ‘티어[티어]’와 같이 ‘니’를 [니]로 발음하는 경우는, ‘무늬, 희망, 티어’의 ‘니, 희, 티’와 같이 ‘표기상’에서 자음을 엮고 있는 ‘니’입니다.

문의하신 ‘국민의’의 ‘의’는 앞말인 ‘국민’의 ‘민’의 받침 ‘니’이 연음됨에 따라 발음상 [니]가 되는 것이지 표기상 ‘니’가 아니므로, ‘무늬, 희망, 티어’의 ‘니’를 [니]로 발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의’의 발음은, 앞말의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앞말의 받침을 연음시키고 ‘의’는 본음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실음을 고려하여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궁미니]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궁미네]와 같이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물음** >> '사귀었다'와 '사귀어라'의 축약형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사졌다', '사겨라'와 같이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인지요?

(김보경, 충남 천안시 대흥동)

**답** >> '사귀다'의 과거형인 '사귀었다', 명령형인 '사귀어라'는 '사졌다', '사겨라'와 같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발음상으로 [꺀]와 [꺁]이 줄어들어 [꺃]가 되지 않으며, 표기상으로 '꺀'와 '꺁'이 줄어든 형태를 나타낼 자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졌다', '사겨라'와 같이 쓰는 것은 잘못이며 '사귀었다', '사귀어라'와 같이 써야 합니다.

**물음** >> 사전에 한 단어로 나오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나오는 말인데, 앞에 '아무'라는 말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붙여 쓰나요? '아무 관계 없다'처럼 말입니다.

(김규정, 부산시 중구 중앙동)

**답** >> 문의하신 표현은 '아무 관계 없다'로 띄어 씁니다.

띄어쓰기가 통사적인 구조에 의해서 달라지는 예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없다'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제 될 것이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예) 나는 절대로 이번 일에 관계없어요.

물건만 좋다면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위 예에서 보신 것처럼 ‘관계없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으므로 붙여 씁니다. 이 말은 명사 ‘관계’와 형용사 ‘없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무’라는 말이 오게 되면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아무’는 관형사인데, 관형사가 꾸미는 것은 체언입니다. 따라서 ‘아무’가 꾸미는 것은 명사인 ‘관계’이지 형용사인 ‘관계없다’가 아니므로, 비록 ‘관계없다’가 한 단어로 있더라도 앞에 ‘아무’가 올 때는 ‘관계’라는 명사와 ‘없다’라는 형용사를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아무 상관 없다’가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관형사 ‘아무’가 ‘상관’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므로 ‘상관없다’ 자체로는 한 단어이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처럼 띄어 씁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띄어쓰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나) 힘든 일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다) 좋은 생각 났다.

(라) 달리는 차 창에 비가 내린다.

(마)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자.

(바) 긴 손 끝에 뽀족한 손톱이 자랐다.

‘말하다’는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있지만, (가)에서는 ‘제’가 ‘말’만을 꾸며 주므로 ‘제 말 하면’으로 띄어 씁니다. (나)에서는 관형사형 ‘힘든’이

꾸미는 것이 '일'이므로 '일하다'가 한 단어로 있더라도 '힘든 일 하는'으로 띄어 씁니다. (다)에서는 '좋은'이 '생각'을 꾸며 주므로 '생각나다'라는 말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만 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라)에서도 관형사형 '달리는'이 '차'를 꾸며 주므로 '달리는 차의 창문'의 뜻으로 쓸 때는 '차창'이 한 단어로 있더라도 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마)에서는 '우리'와 '말과 글'을 띄어 씁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이 한 단어로 있지만 '우리'가 '말과 글'을 묶어서 꾸미고 있으므로 '우리 말과 글'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말과 글'처럼 쓰면 '글'이 '우리글'의 뜻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긴 손의 끝'이므로 '손끝'이 한 단어로 있더라도 '긴 손 끝에'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말 중에서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예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쓰셔야겠습니다.

**물음**》 ‘거치다’와 ‘걸치다’가 평소에 많이 헷갈립니다. ‘수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르다.’와 ‘수차례에 거쳐 시험을 치르다.’라는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성,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답**》 두 단어는 표기는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치다’는 아래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거나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났다.’의 의미입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정리해 보면 ‘걸치다’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을 거쳐 이어지다.’라는 의미에 어울립니다. ‘거치다’와 ‘걸치다’의 표기가 비슷

하므로 헛갈릴 수도 있으나 둘의 의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1) 동대문을 거쳐 명동으로 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간다.

(예2) 열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이틀에 걸친 시사회는 끝이 났다.

이번 전시회는 월요일에서 다음 일요일에 걸쳐 계속된다.

또한 '걸치다'는 '~에 걸치다' 구성으로 쓰이고, '거치다'의 경우 '~을 거치다' 구성으로 쓰이는 것을 통해 두 단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르다.'로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물음** >> 평소에 표준 발음에 맞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할 듯 말 듯'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할든말든]인가요 아니면 [할뜯말뜯]인가요?

( 조경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

**답** >> 문의하신 발음은 [할뜯말뜯]이 맞습니다. 관형사형 '-르, -을' 다음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의 제27항에서 이러한 발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그리고 [붙임]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에서도 역시 ‘르’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각각 발음한다. 예컨대 ‘-(으)르거나, -(으)르세, -(으)르수록, -(으)르지, -(으)르진대’ 등이 그 예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기를 제시하였습니다.

할걸[할꺄]	할밖에[할빠꺄]	할세라[할쩌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쩨대]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물음**》 우유를 담은 종이 상자를 ‘우유 갑, 우유 꺄, 우유 꺄’ 중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전에 이 단어들이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우유 꺄’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정확한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최영호,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답**》 ‘우유꺄’ 또는 ‘우유 꺄’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표기를 혼동하고 계시는 ‘꺄’과 ‘꺄’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05(匣) [갑만[갑-]]

「명사」

「1」 물건을 담은 작은 상자.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을 「1」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곽01

「명사」 『방언』

‘성냥01’의 방언(제주).

곽02

「명사」

「1」 → 갑05(匣) 「1」 .

「2」 『북한어』 마른 물건을 넣어 두는, 뚜껑 있는 작은 그릇.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갑’은 ‘물건을 담은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갑’과 많이 혼동하시는 ‘곽’은 성냥의 제주 방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을 표준어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유갑’이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유 갑’으로 적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시에는 ‘우유갑’이 두루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표제어로 추가하였습니다.

우유-갑 (牛乳匣) [--갑]

「명사」

우유를 담아 두는 갑.

¶ 우유갑 재활용.

또한 '팩'의 경우, 외래어 '팩(pack)'이 사전에 '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를 뜻하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우유 팩'으로 띄어 적어야 합니다.

팩03 (pack)

「명사」

「2」 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

¶ 우유 팩/비닐 팩.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유를 담은 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는 '우유갑' 혹은 '우유 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